

화순군민 축제가 된 ‘다문화 결혼식’



새 신랑 정왕기씨가 지난 27일 화순군 도곡면 세계 거석테마파크에서 열린 전통 혼례식에서 태국 출신 신부 리우씨와 행진하며 춤추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태국에서 온
각시한테
자~알 해라잉
”

“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자~알 살아라잉
”

“신부가 외국 사람이란디, 겁나게 착해야. 아 조 잘 살것이어.”

지난 27일 화순군 도곡면 세계 거석테마파크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제20회 도곡면민의 날과 제26회 경로위안잔치가 함께 열린 자리에서 국제결혼 부부가 전통 혼례식을 올리며 지역 주민 500여명의 축복을 받았다.

정왕기(43)씨와 태국 출신 리우(여·27)씨가 그 주인공이다. 현대식 예식장이 아닌 면민 축제의 장에서 전통 예식으로 치러진 이번 결혼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결혼식장을 가득 메운 축하 박수와 웃음 속에서 도곡면 주민들은 “왕기야, 각시한테 잘해라”, “잘 살아라잉” 등 덕담을 건넸다.

이날 축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부부의 결혼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잔치였고 그 속에서 화순 도곡면은 더 포용적인 마을이 됐다.

정왕기씨는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에 살면서

도곡면 정왕기·태국 출신 리우씨 혼인 주민 500명 참석 축하 지난해 8월 득남 ... 35년만에 마을에 올려 퍼진 아이 울음소리

지난해 8월 아들 정시우군을 얻었다. 무려 35년 만에 마을에 올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였다.

정씨는 “서류 문제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늦게 올리게 됐다”며 “변영화와 청년회 등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국제 부부의 ‘본보기’가 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혼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도 언급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거나 늦게까지 결혼 못 한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려면 우리가, 특히 남편인 내가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순지역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과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가 잘 마련돼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어가 서툰 신부 리우씨는 “마을에서 큰 축제를 준비해 줘서 행복하다”며 짧지만 공동체

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감을 남겼다.

정씨는 아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태국어도 함께 배우며 세계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그는 “아이에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부모의 역할과 열린 교육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씨는 또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장하는 방향도 달라지는 만큼 잘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혼식은 비용 대부분도 도곡면 변영회가 부담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씨는 “일반 결혼식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돈을 절약했다. 지역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곡면에서 열린 이번 전통 혼례식은 다문화 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환영받는 일례를 보여줬

다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전통과 현대, 지역 주민과 새로운 가족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면은 다문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준 장이었기 때문이다.

문행량 도곡면 변영회장은 “과거에는 청년들이 많아 체육대회 같은 행사도 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 대신 지역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전통 혼례식을 준비했다”고 마을 잔치로 확대한 이번 결혼식의 기획 배경을 밝혔다.

특히 경로 위안 잔치와 함께 열린 이번 혼례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색다른 추억은 선사했다. 문 회장은 “옛날에는 누구나 전통 혼례를 했지만 요즘은 보기 어렵다.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시골에 사는 초등학교 대다수가 다문화 가정 자녀”라며 “이런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공동체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주민 의료 사각지대 메우는 든든한 버팀목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광산구 보건소 3층에 위치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매주 일요일 오후 1시~5시
20년간 수십만명 무료 진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가 되면 광산구 보건소 3층 건물은 이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다리에 금이 간 노동자, 자궁 질환을 가진 여성, 이가 아픈 어르신 등 다양하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광주 이주민 건강 센터는 광주 이주민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센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지역 이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한다.

센터는 2005년 6월 26일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 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당시 하남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긴 노동시간, 건강보험 미취득, 언어 장벽 등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의료·시민·선교 단체가 힘을 모아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진료실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의사와 약사들이 자신의 병원과 약국 문을 닫고 봉사에 나서는 ‘헌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약사들이 센터를 찾은 이주민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다.

신의 진료’는 센터가 2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다. 현재는 광산구 보건소 건물 3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70여 명에 이르는 이주민이 방문한다.

센터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70여 개국 6만 2000여 명에게 1115회의 무료 진료와 9만 8000건의 투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 통역 서비스도 눈에 띈다. 영어권 외 다양한 언어권 환자를 위해 12개 언어 전문 의료통역사 20여 명을 양성, 병원과 환자 간 소통을 지원한다. 광주시와 협력해 진행되는 통역사 양성·파견 사업은 이주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부터는 전남대병원 사회사

업실과 연계해 매년 10회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 X-RAY,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는 민간 후원금과 공모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적 한계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효철 센터장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업 사회 공헌 연계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의료뿐 아니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문턱 없는 병원’을 지향한다. 투명한 기금 운영과 후원자 대상 영문 보고서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충 해결하고 인식 개선

전남노동권익센터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 등
홀대·차별 문제 해결 앞장
체불·산재·직장 괴롭힘...
노동 법률 서비스도 지원

“내 이름은 응우옌인데 자주 ‘야’라고만 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져온 옷이 반팔 뿐이라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요.”

매년 인력난을 겪는 전남의 농·어업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차질이 생길만큼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의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홀대와 차별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이러한 전남 외국인 노동자들의 ‘말 못할 고충’을 공론화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최근 매번 이름 대신 비속어로 불렸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각자의 이름이 적힌 개별 안전모를 지급하는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따뜻한 본국에서 가져온 얇은 반팔이 전부였던 이들을 위해 전남도청, 현대삼호 등 기업을 대상으로 ‘장동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쳐 겨울옷과 작업복을 기증받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나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공공기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눔 행사를 열었다.

젓가락질을 잘 하지 못해 밥을 느리게 먹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왕따를 당하는 이들을 위해 젓가락 대신 포크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 포크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센터는정책기획팀·노동법률팀·운영기획팀 등 8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센터의 주 업무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이다. 전화·인터넷·내방 상담과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하며 각종 노동관련 심판과 소송에 대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교육사업도 활발하다.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한 노동관계법률 교육,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노동상담소 및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업종·직종별 실태조사와 노동기본권 위반 사례 조사, 개선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길주 센터장은 “면 이국 땅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상처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일상 속 작은 차별까지 꼼꼼하게 살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행복한 전남으로 바뀌게겠다”고 말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